

청년 돌아오고 경제 살아나고...강진군 '취업 1번지'로 뜬다

강진군이 취업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 군은 강진산단을 핵심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적극 연계해 고용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강진산단 취업박람회 개최...고용 창출

강진군은 강진산단 내 입주기업의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진군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2019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재)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열리는 '2019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강진산단 입주기업과 지역 개별기업 30여 곳이 함께한 가운데 구직등록, 현장면접 및 채용,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진산단 입주기업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기업홍보마당'을 비롯해 기업별 인사담당자를 배치하고 구인·구직자간 일대일로 현장면접과 상담을 실시하는 '구인·구직 매칭데이'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와 함께 군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전문가의 특별강연 및 면접·컨설팅 전문가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면접 컨설팅관 운영'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고용시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직자들에게 면접컨설팅이나 메이크업교육, 직업적성검사를 제공해 취업 노하우를 배우고 경험하는 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강진군민에게 지역 기업을 알리고 군민의 관심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는 강진산단 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자리로 온라인상의 제한적인 정보 외에도 취업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22~23일 강진산단 취업박람회

현장면접·채용 등 일자리 창출

군, 적극적인 기업 유치 성과

강진산단 분양률 100% 달성

1조원대 투자·1126명 고용효과



◇ 강진 발전 동력 강진산단 분양률 100%

강진산단 취업박람회 개최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강진산단은 강진군의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과 투자유치 제도 개선의 성공적 결과물로 평가 받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등 지자체 소멸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산단은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원에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손을 잡고 조성한 60여 만㎡의 산단으로 2008년 12월 조성을 시작했으며 2014년 7월 분양공고에 들어가 지난해 2월에 준공됐다.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평가받는 지금과 달리 강진산단은 조성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당초 저조한 분양률로 미분양 토지대금 327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월 1억6000만원이나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고 분양률이 16.4%에 불과해 지역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강진군은 군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을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강진산단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해 전방위적인 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이같은 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과 함께 16.4%로 답보상태이던 강진산단 분양률은 올해 6월 민선 7기 1년 만에 100%로 급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총 42개 기업유치에 성공했으며 투자규모가 1조 2630억에 이르고 1126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강진산단의 고용효과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기업체가 협력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강진 일자리 종합안내 센터' 홈페이지도 개설해 강진산단과 지역 기업들의 구직



이승욱(왼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강진산단 맞춤형 직원 채용설명회에서 채용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11월 6일 기준) 344명에 대한 구인구직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승현실업(주)과 가온축산(주) 등 산단 내 기업 등에 130여명이 취업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더불어 행복한 강진 조성에 있어 이번 강

진산단 취업박람회가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강진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고등학교와 군부대가 지 적극 홍보활동을 펼쳐 구직자들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지난 5월 강진 해양박람회에 전시된 SDN의 선박.

강진산단서 주목받는 기업은

로우카본테크 전처리 탈황제 세계 첫 개발 러시아 수출

SDN(주) 알루미늄 선박·태양광 모듈 선도적 역할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인 강진산단은 현재 42개 기업에 분양을 완료했다. 그 중 7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4개 기업이 준공됐으며 9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다.

산단에 입주한 30여 곳의 전도유망한 기업 중에서도 (주)로우카본테크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로우카본테크는 2005년부터 중국 베이징에 연구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10년간 연구개발 끝에 전처리 탈황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오는 8월부터는 연간 2만, 300억원 규모의 탈황촉매를 러시아 국영발전회사인 이르쿠츠크에너지에 납품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로우카본테크는 연간 3만6000t의 황산화물 저감 촉매제를 생산하는 설비를 산단에 짓고 있으며 강진산단을 해외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 삼아 도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우카본테크의 25개 제품이 조달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제품'으로 지정됐다.

알루미늄 선박과 태양광모듈 제조회사인 SDN(주)도 눈길을 끈다.

SDN은 국내 코스타 등록기업으로 강진산단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SDN 및 6개 관계사(SDN ENG, SD ESS, SD 마린, SD BIO, SD 솔루션, SD PV)는 3단계로 나눠 총 800여억원을 투



로우카본테크 내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제품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5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DN은 일본 혼다엔진의 총 판매처로 환경오염의 부담이 큰 FRP 소재 대신 알루미늄 전용 선박 제조 조선소를 건립해 공해 없는 해양 산업의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 기업체이다.

강진산단 내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물론 소형어선 및 레저선박의 거점 수리센터를 강진에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2019. 11. 23 SAT - 11. 24 SUN

대구광역시 일원

11월 23일(토) Part1. 달빛소통 14:00~18:00 탐방 프로그램 (예술발전소 & 청춘맨션 등)
Part2. 달빛나눔 19:00~21:00 개막식 / 멘토특강 / 달빛콘서트

11월 24일(일) Part3. 달빛기쁨 09:00~14:00 투어 프로그램(대구 근대문화로 골목 투어)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지역문화콘텐츠 중보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있는 열정적인 광주시민(20~39세) 모집기간 : 2019. 11. 19(화)까지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참가비 없음. 기념품 및 숙식제공 참가방법 : 이메일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